

과천시 범계역 외부 에스컬레이터 5일 조기 개통

-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 개시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천시 범계역 7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 5일 조기 개통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외부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작년 12월 안양시와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 올해 2월에 공사에 착수했다.

외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로 범계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는 물론 인근 평화공원, 희망공원, 경수국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도권전철 승강설비 사업을 추진해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강원도 경제 활성화 기여

-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지역업체에 1500억원 집행 완료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원주 ~ 강릉 철도건설사업 추진으로 '1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업체에 약1500억원이 지급되는 등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에는 약6500억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등의 지역업체에 약1,5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업체 지불금액 : 공사대금 200억원, 건설자재비 400억원, 장비임대료 600억원, 인건비 200억원, 기타 100억원 등 지급 완료

특히 작년과 올해에 발주된 원주시(공정율 26.4%), 횡성군(공정율 24.1%), 강릉시(공정율 27.1%)구간의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지역업체의 수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이 교통편의 뿐 아니라 강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품질의 철도건설로 강원도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 예산집행으로 협력업체 유동성 적극 지원

- 특별지원반 운영을 통해 공사대금 1027억원 적기 집행 조치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자금요소가 많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시 신속한 대금지급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반'을 설치·운영한 결과, 추석 전 9일(8.28 ~ 9.5)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362건의 대금지급 요청을 받아 단 한 건의 지연 없이 약 1027억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반은 매년 추석과 연말 2회에 걸쳐 대금지급이 폭주하는 기간에 전산시스템 업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업무처리 지원 및 입력오류 등 시스템적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추석 지원반 활동을 통해 협력업체가 대금청구 후 지급까지 평균 소요일이 전년도 2.9일에서 2.25일로 전년 대비 0.65일 단축되었고, 업무처리 지연요청도 439건으로 파악돼 전년 대비 약 20.8% 감소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관리처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본부,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 전개

- 추석 명절 부패취약시기 대비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 시행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5일 원주역 광장 및 원주시청 앞에서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철도안전 홍보 및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두 기관의 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해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가 담긴 현수막과 교통안전 어깨띠를 착용하고 원주역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본부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와 반부패 청렴실천 상호 협약을 체결했으며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매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본부는 지난 3일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정주님을 초빙해 ‘왜 반부패 청렴인가?’라는 주제로 전 직원 청렴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청렴은 우리가 지킨다!

- 시설사업본부 청렴결의대회 실시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지난 4일 최근 공단의 청렴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해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졌다.

청렴결의대회에서는 'KR CLEAN 10'을 낭독·서명하는 청렴캠페인, 본부장 주재의 청렴강연 및 윤리실천단 회의가 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실시하는 청렴도 인식조사도 병행해 공단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기회도 가졌다.

박 본부장은 “청렴을 우리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KR CLEAN 10'을 항상 생각하며 부패취약시기를 청렴하게 지낼 것”을 당부하며 청렴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시설사업본부 조정호 기자〉

청렴한 업무수행 위한 “임직원 행동지침” 제정

-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주는 지침으로 청렴을 행동으로 말하다 -

기획재무본부는 임직원들이 소관업무 수행 중 '직무관련자'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달 '임직원 행동지침'을 새롭게 제정했다.

행동지침은 기존의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식사, 향응·접대, 골프, 사행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명확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직원 행동지침은 'KR인 클린10'훈과 함께 가장 중요하지만 사소하다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생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 관계자는 “생활 속에 청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청렴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로변 소외계층 위한 한가위 나눔 활동 시행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지원시설 등 사회적 약자 지원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대전인근 철로변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을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시행했다.

공단은 매년 설·추석명절 및 연말연시 등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에 공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영노무처 관계자는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아 안타깝지만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공헌비 지원 현황 (총1,800여만원)
- 철로변 소외계층 아동(KR소년단 24명)
- 1사촌 결연마을 기초생활수급자 8명(연산면 황산별참살이마을)
- 동구 이사동 아동시설(‘대전나자렛집’)
- 동구 판암동 노인시설(‘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 대전역 쪽방상담소(‘별개의 집’)

(사)한국농아인협회 성금 전달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한국농아인협회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본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2012년부터 인연을 맺어 오며 매년 설·추석 명절에 은누리 상품권을 기탁하고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본부 이지연 기자〉